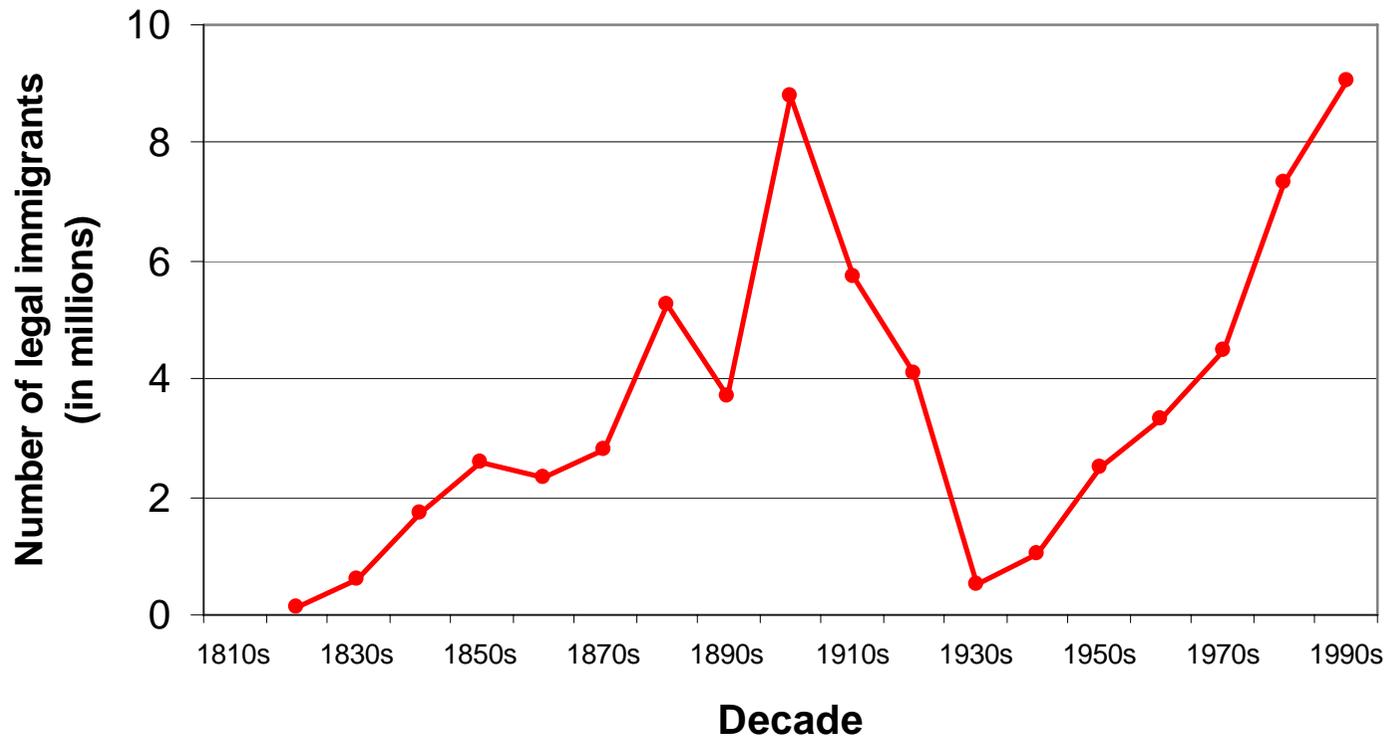


이민 (Immigration in the U.S.)

- 다민족 국가인 미국노동시장에서 이민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이민자의 인구는 최근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.
- 미국은 전세계 국가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음.
- 이민자의 국적 분포도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→ 1950년대 아시아 국가에서 온 이민자의 분포는 6%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무려 30% 이상을 보여주고 있음.
- 국내 노동시장에도 최근 외국인력의 유입이 증가하는 현상에서 미국이주자가 미국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통해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.

[그림 1] 합법적 이민자수 추세, 미국 1820-2000



- 20세기 들어 엄청난 양의 이민자의 유입이 발생하였음 → 대부분 유럽지역에서 들어옴.
- 1930년대 단지 500,000 명의 이민자로 큰 감소를 보여주고 그 이후로 급속히 증가함 → 불법이민자의 유입도 증가함.
- 2000년 현재 약 7백만의 불법이민자가 거주하면 매년 최소 350,000명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.
- 최근 수십 년 동안 큰 폭의 이민자 유입의 증가는 미국 이민정책 변화에 기인하고 있음 → 1965년 국가별 이민자 할당제도를 없애고 미국 시민자와의 가족관계에 근거하여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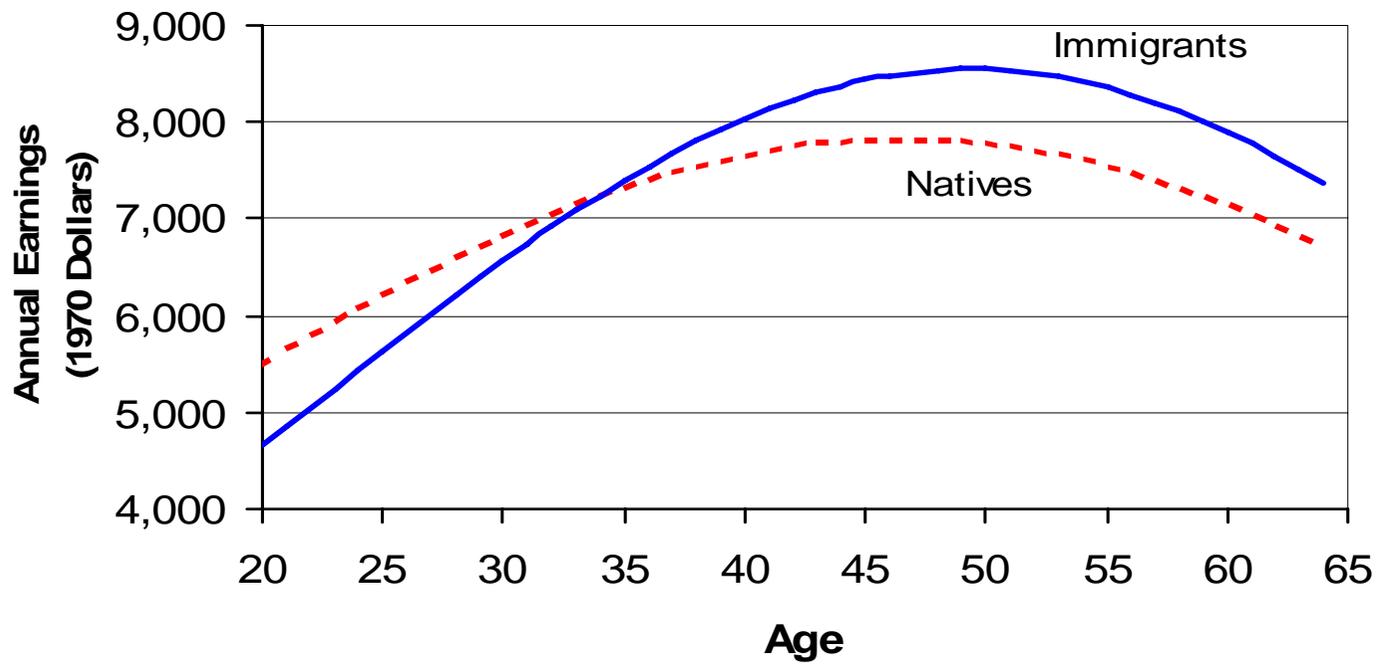
- 1965년 이민정책의 변화는 송출국(sending-country)의 구성변화를 초래하였음 → 1950년대 합법이민자의 2/3는 유럽이나 캐나다에서 1/4은 남미에서 그리고 아시아 분포는 6%에 불과함.
- 1990년대에는 17%만이 유럽이나 캐나다에서 47%는 남미 그리고 아시아 국적이 무려 31%를 차지함.
- 이민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송출국과 미국과의 소득차이에 기인함. 소득 격차가 증가하면 이민의 유입은 증가함.

미국노동시장에서 이주자의 성과

- 이주자는 미국노동시장에서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?
- 이주자의 경제적성과(economic performance)는 그들의 숙련도에 따라 결정.

- 이주자의 경제적 성과와 미국 노동시장의 동화(assimilation)과정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횡단면자료를 활용하였음.
- 이런 횡단면 분석연구는 연구시점에서 오래 전에 이민 온 근로자와 최근에 이민한 근로자의 임금차이를 분석하고 있음 → Chiswick(1978).
- 1970년 미국 센서스 자료를 이용한 결과에 의하면 미국에 막 이주한 근로자의 임금 (20세 기준)은 미국 근로자에 비해 약 15% 낮은 것으로 나타남.
- 그러나 14년이 지나서 이민자의 임금이 내국인의 임금을 추월(overtake)하는 것으로 나타남 → 동화효과(assimilation effect)로 해석함.

[그림 2] 이주자와 내국인의 횡단면 연령-임금 궤적



자료: Chiswick (197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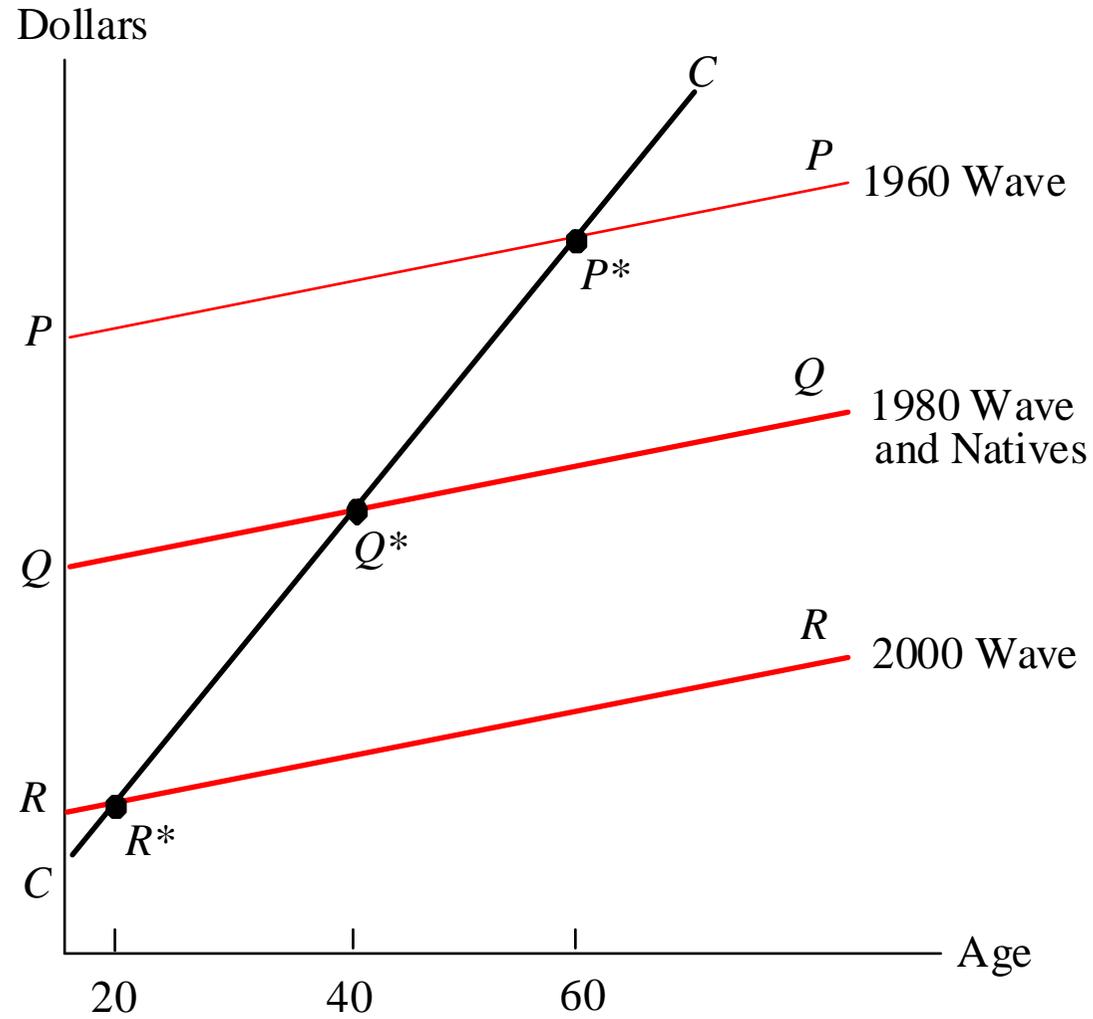
[그림 2] 에 대한 세 가지 해석들

- (1) 이민자의 임금은 최초에 내국인 보다 낮은 수준이었음.
→ 이민자에 경우 미국 노동시장에 필요한 기술수준 -예를 들어 언어능력, 직장에 대한 정보, 학력인정 등 -이 낮은 수준이었음.
- (2) 이민자의 연령-임금 궤적선이 내국인 보다 가파른 것으로 나타남.
→ 이민자가 언어와 미국노동시장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습득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급속히 증가함. 일종의 동화효과로 해석됨.
- (3)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이민자의 임금이 내국인의 임금을 추월함 → 인적자본 모델로 설명이 힘들. Selection model 로 설명하고자 함.

동화효과 해석의 문제점

- 횡단면 분석에서 보여주는 과정은 전체 이민자의 모습을 한 시점에서 접근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.
- 이 분석과정에서는 시대별로 이주한 사람들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. 예를 들어 1960년대 이주한 사람들과 2000년대 이주를 한 사람들의 질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함.
- 따라서 기존의 횡단면 분석연구는 서로 다른 시점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임금을 이주기간 차이로 분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→ 세대별 이주자의 질적 차이를 고려해 주어야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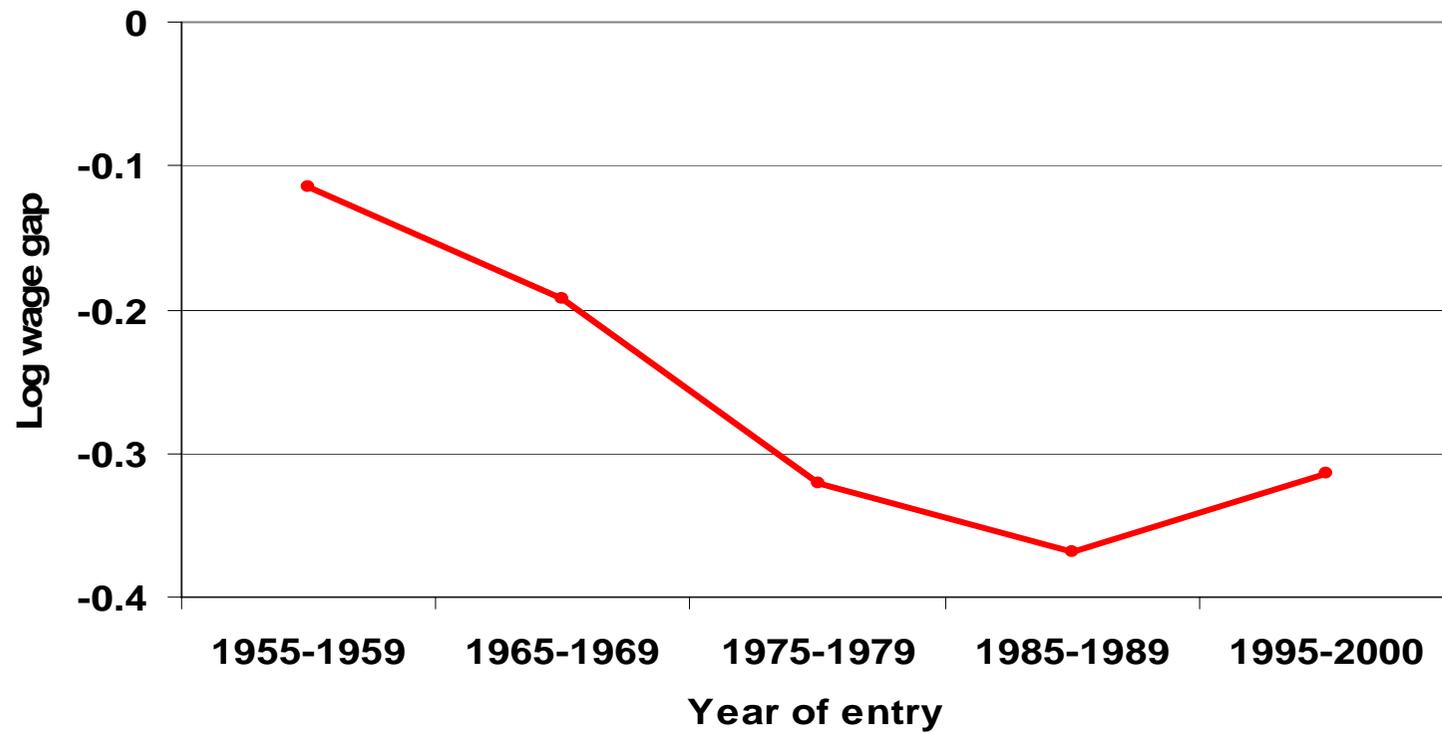
[그림 3] 세대효과(cohort effects)와 이민자의 연령-임금 궤적



- 가상적으로 1960년대, 198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이주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들은 모두 20세에 미국에 이주했다고 하자.
- 1960년대 이민한 사람들의 노동생산성이 그 어느 그룹보다 (내국인 포함해서) 높다고 가정하고 (PP line) 나이가 증가할수록 임금도 증가함.
- 동일 나이에 대해 1960년대 이주한 사람들의 임금은 1980년대 (QQ line) 보다 높고 1980년대 이주한 사람들의 임금은 2000년대 (RR line) 이주한 사람보다 높음.
- 1980년대 이주한 사람들과 내국인의 생산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함.

- 횡단면 분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료는 각각 P^* , Q^* , R^* 이며 이들을 연결하면 (CC line) 이주기간이 증가할수록 임금이 증가하는 ‘동화효과’가 발견됨.
- 횡단면 분석에서 도출된 연령-임금 궤적선인 ‘CC’ line 의 기울기는 내국인 근로자의 연령-임금선 기울기 보다 급함 → 이민자와 내국인의 임금 수렴.
- 40세 연령에서 이주자의 임금이 내국인의 임금과 교차하고 그 이후 시점에서 내국인의 임금을 초월하는 현상이 발견됨.
- 그러나 이런 현상은 인적자본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 동화효과와 결과가 아니라 세대별 이주자의 질적 차이인 세대효과(cohort effects)인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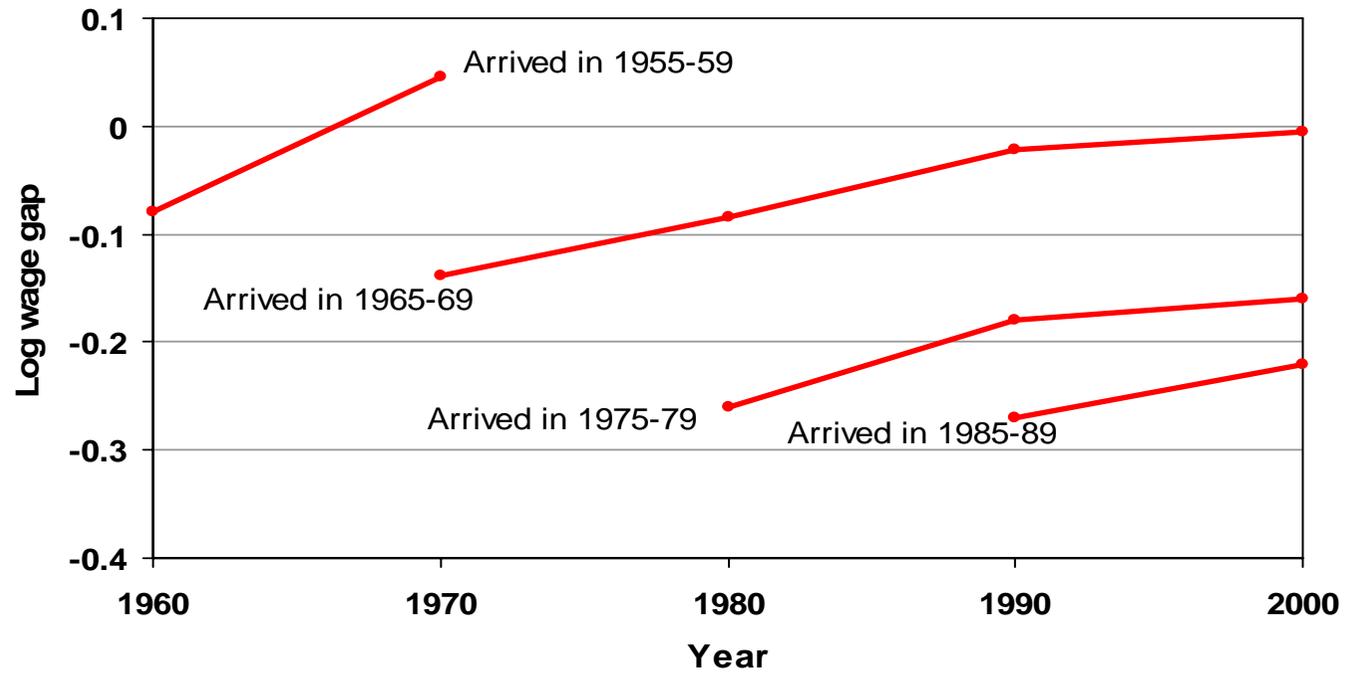
[그림 4] 이민자(이민시점)와 내국인의 임금격차



- 최근에 이주한 사람들의 질적 수준이 과거에 이주한 사람보다 낮다는 증거를 보기 위해서 이민직후 이민자의 임금과 내국인의 임금격차 추세 (그림4)를 분석함.
- 1960년대 막 이주한 사람들의 임금은 내국인 보다 약 14% 낮았으나 그 격차는 1980년 이주한 사람들의 경우 35% 수준으로 증가함.
- 이민직후 이민자의 임금은 자신들의 국가에서 축적한 인적자본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주자의 질적 수준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.

[그림 5] 세대별 이민자의 임금변화

Relative wage of immigrants who arrived
when they were 25-34 years ol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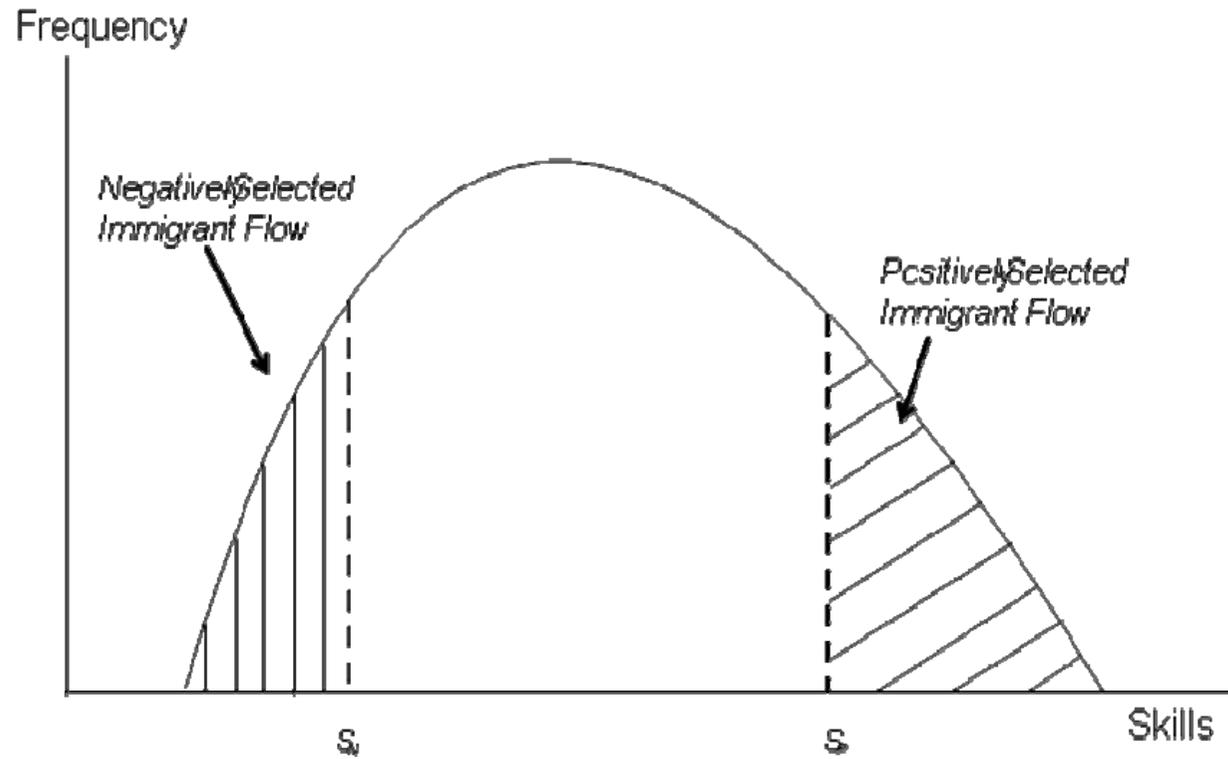


- 세대별 생산성 차이를 고려하여 각 이주자 세대들이 미국 노동시장에 동화하는 과정을 추적한 결과가 [그림 5]임.
- 1970년대 이전에 이주한 사람들은 최초에는 내국인과의 임금격차를 경험하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를 좁혀 내국인의 임금격차를 따라 잡기도 함.
- 그러나 1970년 이후 이주한 사람들의 초기 임금수준도 내국인에 비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그 격차를 많이 좁히지 못함.
- 세대별 질적 차이의 원인? → 미국 이민정책의 변화, 송출국가 구성의 변화 등등.

이민결정모델

- Roy model 에서 송출국가(source country) 근로자들의 생산성 혹은 숙련도 배합을 중요 요소로 고려함 → 이주자들의 Self-selection 문제로 접근함.
- Positive selection: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가 이주하면 미국 노동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높은 임금을 받음.
- Negative selection: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가 이주하면 미국 노동시장에서도 낮은 성과를 보이고 낮은 임금을 받음.

[그림 6] 송출국가의 숙련수준의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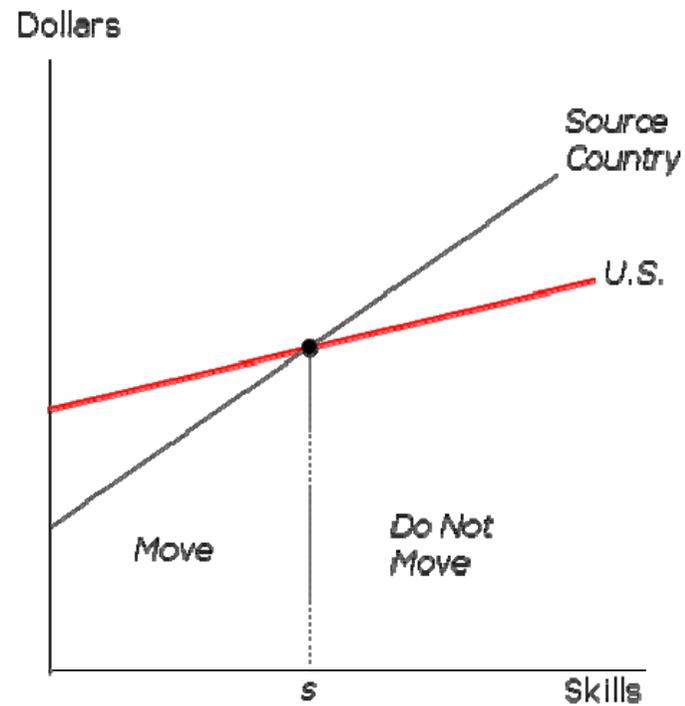


- 송출국가 이민국의 인적자본에 대한 가격의 차이가 이주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.
- 만일 미국에서의 숙련도에 대한 보상 즉 rate of return to skills 이 송출국보다 높다면 고숙련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민하는 경향이 높음 → 이민자는 positively selected.
- 반대로, 만일 미국에서의 숙련도에 대한 보상 즉 rate of return to skills 이 송출국보다 낮다면 저숙련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민하는 경향이 높음 → 이민자는 negatively selected.

[그림 7] 이민자 유입의 자기선택모델



(a) Positive selection



(b) Negative selection